

漁父章句第七 離騷

1 漁父者屈原之所作也屈原放逐在江湘之間憂愁歎吟儀容變易而漁父避世隱身釣魚江濱欣然
 2 自樂時遇屈原川澤之域怪而問之遂相應答楚人思念屈原因敘其辭以相傳焉¹
 3 屈原既放²游於江潭³行吟澤畔⁴顏色憔悴⁵形容枯槁⁶
 4 漁父見而問之⁷曰子非三閭大夫與⁸何故至於斯⁹
 5 屈原曰舉世皆濁¹⁰我獨清¹¹衆人皆醉¹²我獨醒¹³是以見放¹⁴
 6 漁父曰¹⁵聖人不凝滯於物¹⁶而能與世推移¹⁷世人皆濁¹⁸何不瀝其泥¹⁹而揚其波²⁰衆人皆醉²¹何

1 卜居漁父皆假設問答以寄意耳而太史公屈原傳劉向新序嵇康高士傳或採楚辭莊子漁父之言以為實錄非也

2 身斥逐也

3 戲水側也

4 履荊棘也

5 奸微黑也補曰奸古旱切微力遲切

6 癯瘦瘠也補曰槁音考

7 怪屈原也

8 謂其故官史記作歟

9 曷為遭此患也史記云何故而至此

10 衆貪鄙也一作世人皆濁史記作舉世混濁而我獨清衆人皆醉而我獨醒

11 志潔已也

12 惑財賄也一云巧佞曲也

13 廉自守也

14 棄草野也一本此句未有爾字

15 隱士言也

16 不困辱其身也史記云夫聖人者一本物上有萬字

17 隨俗方圓

18 人貪婪也一作舉世皆濁史記云舉世混濁

19 同其風也史記作隨其流補曰瀝古沒切又乎沒切濁也

20 與沈浮也五臣云瀝泥揚波稍隨其流也

21 巧佞曲也

1-2 漁父者屈原之所作也屈原放逐在江湘之間憂愁歎吟儀容變易而漁父避世隱身釣魚江濱欣然自樂時遇屈原川澤之域怪而問之遂相應答楚人思念屈原因敘其辭以相傳焉] 어보라는 작품은 굴원이 지은 것이다. 굴원은 쫓겨나 강상 사이에 있었는데 근심과 수심, 한탄과 탄식으로 용모가 변하였다. 그런데 어보는 세상을 피해 몸을 숨기고 강과 물가에 낚시를 드리우고 혼연히 혼자 즐기고 있던 차에 굴원을 강과 호수 부근에서 만났다.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묻고 그 물음에 응답하여 초나라 사람의 생각을 주고받았는데 굴원이 그 말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전해지게 된 것이다. 3 屈原既放] 굴원이 이미 쫓겨나서 3 游於江潭] 강과 호수에서 노닐며 3 行吟澤畔] 연못 가에서 다니며 읊는데 3 顏色憔悴] 안색이 초췌하고 3 形容枯槁] 그 모습이 말라 있더라. 4 漁父見而問之] 어보가 보고 그에게 물어 4 曰子非三閭大夫與] 가로되, 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닌가? 4 何故至於斯]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이 되었는가? 5 屈原曰舉世皆濁] 굴원이 말하기를, 모든 세상이 모두 혼탁한데 5 我獨清] 나 혼자 고결하고 5 衆人皆醉] 모두가 다 취했는데 5 我獨醒] 나 홀로 깨어 있다. 5 是以見放] 그래서 쫓겨났노라. 6 漁父曰] 어보가 말하기를, 6 聖人不凝滯於物] 성인은 외물에 그 몸을 욱보이지 않으며 6 而能與世推移] 또한 세상의 추이와 함께할 수 있다. 6 世人皆濁] 세상 사람이 모두 혼탁하다면 6 何不瀝其泥] 어찌하여 그 진흙을 흐트려서 6 而揚其波]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가? 6 衆人皆醉] 많은 사람이 모두 취했다면 6-7 何不舖其糴] 어찌하여 그 술지게미를 먹고

7 不舖其糟²²而歡其醜²³何故深思高舉²⁴自令放爲²⁵
 8 屈原曰吾聞之²⁶新沐者必彈冠²⁷新浴者必振衣²⁸安能以身之察察²⁹受物之汶汶者乎³⁰寧赴湘
 9 流³¹葬於江魚之腹中³²安能以皓皓之白³³而蒙世俗之塵埃乎³⁴
 10 漁父莞爾而笑³⁵鼓枻而去³⁶歌曰³⁷
 11 滄浪之水清兮³⁸可以濯吾纓³⁹滄浪之水濁兮⁴⁰可以濯吾足⁴¹
 12 遂去不復與言⁴²

楚辭補註卷第七終

²²從其俗也補曰舖布乎切

²³食其祿也文選醜作醜五臣云舖糟歡醜微同其事也舖食也歡飲也糟醜皆酒滓補曰醜力支切以水齋糟也醜薄酒也

²⁴獨行忠直五臣云心思謂憂君與民也

²⁵遠在他域史記云何故懷瑾握瑜而自令見放爲

²⁶受聖人之制也

²⁷拂土盆也補曰荀子云新浴者振其衣新沐者彈其冠人之情也其誰能以己之僬僬受人之撻撻者哉

²⁸去塵穢也

²⁹已清潔也五臣云察察潔白也史記云又誰能以身之察察

³⁰蒙垢塵也補曰汶音門汶濛沾辱也一音昏荀子注引此作悟悟悟不明也悟門昏二音

³¹自沈淵也史記作常流常音長

³²身消爛也一無之字史記云而葬乎江魚腹中耳

³³皓皓猶皎皎也皓一作皎五臣云皓白喻真潔

³⁴被點汙也一無而字塵埃史記作溫蠖說者曰溫蠖猶悟憤也

³⁵笑離斷也莞一作莞補曰莞爾微笑胡板切

³⁶叩船舷也枻一作棹補曰枻音曳船邊也

³⁷一本歌上有乃字

³⁸喻世昭明補曰浪音郎禹貢嶓冢導漾東流爲漢又東爲滄浪之水注云漾水至武都爲漢至江夏謂之夏水又東爲滄浪之水在荊州孟軻云有孺子歌曰滄浪之水清兮可以濯我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我足清斯濯纓濁斯濯足矣自取之也水經云武當縣西北漢水中有洲名滄浪洲地說曰水出荊山東南流爲滄浪之水是近楚都故漁父歌云云余案尙書禹貢言導漾水東流爲漢又東爲滄浪之水不言過而言爲者明非他水蓋漢沔水自下有滄浪通稱耳漁父歌之不達水地宜以尙書爲正

³⁹沐浴升朝廷也吾一作我五臣云清喻明時可以修飾冠纓而仕也

⁴⁰喻世昏闇

⁴¹宜隱遁也吾一作我五臣云濁喻亂世可以抗足遠去

⁴²合道眞也補曰藝文志云屈原賦二十五篇然則自騷經至漁父皆賦也後之作者苟得其一體可以名家矣而梁蕭統作文選自騷經卜居漁父之外九歌去其五九章去其八然司馬相如大人賦率用遠游之語史記屈原傳獨載懷沙之賦揚雄作伴牢愁亦旁惜誦至懷沙統所去取未必當也自漢以來靡麗之賦勸百而諷一無復惻隱古詩之義故子雲有曲終奏雅之譏而統乃以屈子與後世辭人同口而論其識如此則其文可知矣

7 而歡其醜] 찌꺼기 술이라도 마시지 않는가? 7 何故深思高舉] 어찌하여 고고하게 생각하고 높게 거하여 7 自令放爲] 스스로 쫓겨나게 만드는가? 8 屈原曰吾聞之] 굴원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로는 8 新沐者必彈冠] 새로 머리감은 사람은 반드시 관을 털고 8 新浴者必振衣]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던다. 8 安能以身之察察] 어찌 나의 깨끗함으로 8 受物之汶汶者乎] 외물의 더러움을 묻힐 수 있겠는가? 8-9 寧赴湘流] 차라리 상류에 나아가 9 葬於江魚之腹中] 죽어 강의 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9 安能以皓皓之白] 어찌 희다 흰 것으로 9 而蒙世俗之塵埃乎]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쓸 수 있겠는가? 10 漁父莞爾而笑] 어보가 슬며시 웃고는 10 鼓枻而去] 노를 두드리며 가면서 10 歌曰] 노래하였다. 이르기를, 11 滄浪之水清兮] 창랑의 물이 맑은지라 11 可以濯吾纓] 갓끈을 씻을 만하고 11 滄浪之水濁兮] 창랑의 물이 흐린지라 11 可以濯吾足] 발을 씻을 만하구나 12 遂去不復與言] 나아가 더 말하지 아니하였다.